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성과 비교

김상미*, 황성완**, 윤서중***, 강정규****

유한대학교 보건의료행정*, 백석예술대학교 헬스케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A Comparison Study of Perform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Sang-Mi Kim*, Sung-Wan Hwang**, Seo-Jung Yoon***, Jung-Kyu Kang****

Dept. of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Yuhan University*

Dept. of Healthcare, BaekSeok Arts University**

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

Dept. of Healthcare Management, Cheongju University****

요 약 이 논문은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효율적인 경영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자료는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67개 의료기관의 재무성과를 조사하였다. 병원 현황 및 의료기기 정보는 2012년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대한병원협회 명부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법인보다 시나 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였고,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 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서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과 같이 의료법인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필수공익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병원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방공사의료원, 재무효율성, 성과, 총자산수익률, 수익성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hospital perform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To compare the result of the financial performance between two group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urrent ratio, Fixed ratio, total assets turnover, personnel expenses to gross revenues, management expenses to gross revenues, return on assets, operating margin. The significant impact relations of ROA(Return on Assets) were formed the total assets turnover, salaries, material costs, administrative expenses. Although two groups are the similar beds, most of LGH are in the red so the managers and local government must consider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GH.

Key Words : Local Government Hospital(LGH), financial efficiency, performance, ROA, profitability

Received 31 July 2013, Revised 25 August 2013

Accepted 20 November 2013

Corresponding Author: Sung-Wan, Hwang(Baekseok arts university)

Email: healthgate@ba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의료기관은 설립주체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 의학교육과 연구, 의료기술의 개발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주목적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대흐름과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경영기법과 전략들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정적 안정이 경영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1,2,3].

지방공사의료원들은 민간의료기관과 달리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하는 공공성과 함께 병원의 존립을 위한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특히 자유경쟁시장 체제 하에서 지방공사의료원들은 대부분의 의료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자본을 조달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므로 더욱 효율적인 경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환경은 계속 변화하여 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한 자율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인터넷의 발달로 질병정보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의사, 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도 향상되고 있다. 또한 교통기반시설도 계속 발달하여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지리적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대형의료기관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의료기관 간 경쟁에서도 밀려 고가의 의료장비를 손쉽게 보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성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 도립병원의 폐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방공사의료원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방공사의료원들만의 경영성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4-8], 경쟁관계에 있는 지역사회의 다른 병원들과 비교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역 내 병원들과 지방공사의료원을 비교함으로써 실제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상태와 재무성과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성과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의 효율

적인 경영을 재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간의 기본적인 현황을 비교한다. 둘째,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의료자원 현황을 비교한다. 셋째,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간의 재무적인 성과를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중 2011년도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22개와 의료법인 45개(2개 개인병원 포함) 총 67개 의료기관의 재무성과를 조사하였다.

병상규모는 2011년도 대한병원협회의 병원명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를 근거로 파악하였다. 조사된 병원 중 공시시스템의 공시 정보가 없거나 파악하기 어려운 병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병원의 일반적인 현황 및 의료기기와 관련된 정보는 2012년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를 사용하였다.

2.2 변수 및 분석방법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재무적인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현황 자료로 지역구분(서울특별시, 광역시, 시, 군), 설립기간, 병상수, 의사수, 간호등급을 조사하였다. 의료자원 현황으로 CT, 유방촬영장치, 골밀도검사기, MRI, 초음파영상진단기를 조사하였다.

재무적인 자료로는 유동비율, 고정비율, 타인자본의존도, 총자산회전율, 의료수익 대 인건비 비율, 의료수익 대 재료비비율, 의료수익 대 관리비비율, 총자산의료이익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을 조사하였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간의 기본적인 현황, 의료자원 현황, 재무적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x²와 t-test를 실시하였다. 총자산의료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의 기본현황 분석

먼저 분포를 살펴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은 광역시 3곳(13.6%), 시 16곳(72.7%), 군 3곳(13.6%)에 위치하였고, 의료법인은 서울 13곳(28.9%), 광역시 9곳(20.0%), 시 20곳(44.4%), 군 3곳(6.7%)으로 조사되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이 시나 군 지역에 많이 위치하였다.

지방공사의료원은 20개 병원 중 간호등급이 4등급인 곳이 7개(35.0%)로 가장 많았고, 의료법인도 간호등급이 4등급인 병원이 9개(21.4%)로 가장 많았다. 지방공사의료원들은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설립기간은 지방공사의료원은 평균 42.77년이고 의료법인은 평균 20.11년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을 알 수 있으며, t값은 3.637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병상 수는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250.32병상, 의료법인은 평균

275.24병상으로 t값은 -0.895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의사 수는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19.68명, 의료법인 평균 32.82명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의사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t값은 -3.489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2 의료자원의 비교

의료자원을 조사한 결과 CT는 지방공사의료원 평균 1.0대, 의료법인 평균 1.31대로 의료법인이 좀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t값이 -3.74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유방촬영장치는 지방공사의료원 평균 1.18대, 의료법인 평균 1.39대이었으며, t값은 -1.530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골밀도검사기는 지방공사의료원 평균 1.27대, 의료법인 평균 1.27대로 차이가 없었다. MRI는 지방공사의료원 평균 1.00대, 의료법인 평균 1.14대로 의료법인이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t값이 -2.216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영상진단기는 지방공사의료원 평균 4.73대, 의료법인 평균 9.42대로 의료법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Table 1〉 Region distribution & nursing grade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Unit : N(%))

		hospital type of foundation		total	X ²
		Local government hospitals	general hospitals		
region	seoul	0(0)	13(28.9)	13(19.4)	9.691*
	metropolitan	3(13.6)	9(20.0)	12(17.9)	
	city	16(72.7)	20(44.4)	36(53.7)	
	country	3(13.6)	3(6.7)	6(9.0)	
total		22(100.0)	45(100.0)	67(100.0)	
nursing grade	1	0(0.0)	1(2.4)	1(1.6)	9.155
	2	0(0.0)	5(11.9)	5(8.1)	
	3	0(0.0)	7(16.7)	7(11.3)	
	4	7(35.0)	9(21.4)	16(25.8)	
	5	4(20.0)	4(9.5)	8(12.9)	
	6	6(30.0)	8(19.0)	14(22.6)	
	7	3(15.0)	8(19.0)	11(17.7)	
total		20(100.0)	42(100.0)	62(100.0)	

*p<0.05 **p<0.01 ***p<0.001

〈Table 2〉 Foundation periods, number of doctor according to type of foundation

		hospital type of foundation	N	Mean±S.D	t
foundation periods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42.77±28.38	3.637**
	general hospitals		45	20.11± 9.98	
number of beds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250.32±115.19	-0.895
	general hospitals		45	275.24±96.29	
number of doctor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19.68± 8.58	-3.489**
	general hospitals		45	32.82±22.09	

*p<0.05 **p<0.01 ***p<0.001

〈Table 3〉 Comparison of medical equipment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hospital type of foundation	N	Mean±S.D	t
CT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1.00±.00	-3.748**
	general hospitals	45	1.31±.56	
Mammography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1.18±.40	-1.530
	general hospitals	44	1.39±.69	
Bone Densitometer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1.27±.63	0.016
	general hospitals	37	1.27±.51	
MRI	Local government hospitals	19	1.00±.00	-2.216*
	general hospitals	43	1.14±.41	
Ultrasonic Diagnosis Appartus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4.73±3.01	-2.518*
	general hospitals	45	9.42±11.74	

*p<0.05 **p<0.01 ***p<0.001

로 파악되었으며, t값은 -2.518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재무적 현황 비교

3.3.1 재무비율 비교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재무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유동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235.49%, 의료법인이 평균 94.60%이었으며, t값은 2.489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정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68.00%, 의료법인이 평균 223.76%이었으며, t값은 -2.08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인자본의존도는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56.38%,

의료법인이 평균 70.69%이었으며, t값은 -1.520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총자산회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52.30%, 의료법인이 평균 97.07%이었으며, t값은 -6.03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67.50%, 의료법인이 평균 47.99%이었으며, t값은 6.787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수익 대비 재료비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30.58%, 의료법인이 평균 29.90%이었으며, t값은 0.156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료수익 대비 관리비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28.82%, 의료법인이 평균 23.54%이었으며, t값은 2.607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

〈Table 4〉 comparison of finance performance between Local government hospitals and general hospitals

	hospital type of foundation	N	Mean±S.D	t
current ratio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235.49±253.23	2.489*
	general hospitals	45	94.60±113.98	
fixed ration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68.00±604.95	-2.081*
	general hospitals	45	223.76±368.61	
dabt to equity ratio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56.38±40.23	-1.520
	general hospitals	45	70.69±26.10	
total assets turnover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52.30±21.98	-6.035***
	general hospitals	45	97.07±31.15	
salaries	Local government hospitals	21	67.50±12.14	6.787***
	general hospitals	41	47.99± 7.12	
material costs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30.58±11.73	0.156
	general hospitals	45	29.90±18.51	
administrative expense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28.82±10.14	2.607*
	general hospitals	41	23.54± 5.94	
medical income to total assets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11.79±11.16	-2.674**
	general hospitals	44	-0.15±18.76	
medical income to revenue ration	Local government hospitals	22	-23.84±18.08	-5.697***
	general hospitals	45	0.75±13.04	

*p<0.05 **p<0.01 ***p<0.001

되었다. 총자산의료이익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11.79%, 의료법인이 평균 -0.15%이었으며, t값이 -2.674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은 지방공사의료원이 평균 -23.83%, 의료법인이 평균 0.81%이었으며, t값은 -5.685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3.2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사이의 의료이익과 당기순이익 비교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22개 병원 중 흑자병원 1개(4.5%), 적자병원 21개(95.5%)이었으며, 의료법인은 44개 병원 중 흑자병원 33개(75.0%), 적자병원 11개(25.0%)로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의료이

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기순이익은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흑자병원 3개(13.6%), 적자병원 19개(86.4%)이었으며, 의료법인은 흑자병원 37개(82.2%), 적자병원 8개(17.8%)로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사이의 당기순이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에 따라 총자산의료이익율에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R^2=0.823$, Adjust $R^2=0.718$, $F = 7.905$ 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자산의료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타인자본 의존도,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medical income and net income

〈Unit:N(%)〉

		hospital type of foundation		total	X ²
		Local government hospitals	general hospitals		
medical income	profit	1(4.5)	33(75.0)	34(51.5)	29.148***
	deficit	21(95.5)	11(25.0)	32(48.5)	
total		22(100.0)	44(100.0)	66(100.0)	
net income	profit	3(13.6)	37(82.2)	40(59.7)	28.891***
	deficit	19(86.4)	8(17.8)	27(40.3)	
total		22(100.0)	45(100.0)	67(100.0)	

*p<0.05 **p<0.01 ***p<0.001

〈Table 6〉 Factors affecting medical income to total asset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value
	B	standard error	β		
(constant)	43.692	19.373		2.255	.03
foundations	7.867	4.020	.402	1.957	.06
region	.407	1.428	.033	.285	.79
foundation periods	-.001	.045	-.002	-.017	.99
number of doctors	-.050	.096	-.105	-.522	.61
nursing grade	-.081	.842	-.013	-.096	.92
CT	1.194	2.243	.067	.532	.60
Mammography	1.297	2.879	.076	.451	.66
Bone Densitometer	-.441	1.674	-.028	-.264	.79
MRI	-4.534	3.182	-.134	-1.425	.17
Ultrasonic Diagnosis	.059	.126	.061	.464	.65
current ratio	-.003	.005	-.070	-.615	.54
fixed ration	-.002	.002	-.131	-1.277	.21
dabt to equity ratio	-.126	.035	-.380	-3.566	.00
total assets turnover	-.045	.036	-.144	-1.247	.22
salaries	-.303	.118	-.374	-2.577	.02
material costs	-.561	.247	-.284	-2.269	.03
administrative expense	-.510	.150	-.358	-3.391	.00

$R^2 = 0.823$ Adjust $R^2 = 0.718$ $F = 7.905$ ***

*p<0.05 **p<0.01 ***p<0.001

4. 고 찰

본 연구는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고자 지방공사의료원과 비스한 병상규모의 의료법인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국세청 비영리법인 회계정보시스템인 공익법인공시시스템에 입력된 자료가 미흡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지방공사의료원 34개 중 22개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의료원의 경우 병상수가 전체 의료원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서 제외하였고, 경기의료원의 경우에는 6개 병원이 하나의 회계 자료로 통합이 되어서 구분하기 어려워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방공사의료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제한점이 있지만 대다수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대상으로 기타 의료법인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한 의사 수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법인보다 적은 인원로 진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못하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도 어려워지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는 원인 중의 하나이다. 물론 많은 수의 의사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요건은 아니나, 지방공사의료원이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운석 외(2001)의 연구에서도 흑자병원의 의사수가 적자병원의 의사보다 평균 16.3%나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방공사의료원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의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 의료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사의료원은 인건비 또는 진료지원환경에서 의료법인 또는 다른 설립주체에 의한 병원들에 비해 수준이 떨어지며, 의료원의 지리적 위치나 위상도 의사채용의 부정적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의료원의 의사채용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의료자원에서도 골밀도검사기와 체외충격파쇄석기를 제외하고 CT, 유방촬영장치, MRI, 초음파영상진단기 모두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법인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이 좋은 의료기기로 검사를 받기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맞추는데 한계가 있다

는 반증이나, 다만 경쟁적으로 의료기기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재무적인 특성에서 인건비비율은 지방공사의료원 평균 67.5%로 의료수익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우 외(2004), 이창은(2009)의 연구에서도 인건비비율이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성이라는 틀 속에서 조직 경영의 효율성을 경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반 병원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의료법인에 비해서 인건비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지방공사의료원들의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사채용이 쉽지 않은 점과 함께 직원들의 임금조정이 쉽지 않은 것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의료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은 22개 병원 중 흑자병원 1개인 반면, 의료법인은 44개 병원 중 흑자병원 33개였다. 비슷한 규모의 병상 구조에서 지방공사의료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무부처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진료실적만 보았을 때 적자가 많은데, 이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적자를 매워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진 및 관리감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박종영(2007)의 연구에서도 수익성을 판단하는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련요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비교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구당 병상수, 근거리 내 의료기관 수 등 병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기준으로 선정하지 못하고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병원들 중에서도 병상규모와 재무자료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자료의 대부분이 의료기관회계규칙에 맞게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간의 비교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조사 대상 병원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상 병원들 간의 비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병원의 재무적인 건전성과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병원들이 의료기관회계규칙을 올바르게 적용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의료자원 현황과 관련해서 단순히 의료기기 보유현황만을 갖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의료수익과 관련해서 의료자원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며, 추후 연구에서는 의료자원 활용도를 추가해서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과의 경영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지방공사의료원의 재무구조를 성과측면에서 분석하여, 병원경영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의 2011년도 재무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22개와 의료법인 45개(2개 개인병원 포함) 총 67개 의료기관을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을 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은 의료법인보다 시나 군 지역에 많이 분포하였다. 간호등급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 모두 간호등급 4등급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는 간호등급 4등급 이하가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었다. 설립기간, 의사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병상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의료자원을 조사한 결과 CT, MRI, 초음파영상 진단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방촬영장치, 골밀도검사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지방공사의료원과 의료법인의 재무 현황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유동비율, 고정비율, 총자산회전율, 인건비비율, 관리비비율, 총자산의료이익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타인자본의존도, 재료비비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법인에 비해서 적자병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타인자본의존도,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이 총자산의료이익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법인보다 재무적인 성과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규모의 조사 대상병원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의료자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의료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공사의료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급과 같이 의료법인과 경쟁관계를 지양하고, 필수공익의료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병원구조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yung-Sang Park, Yong Kyoan Lee, Yoon-shin Kim, Factors Affecting Profitability of General Hospitals Focused on Operating Margin,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9 No. 6, pp. 196-206, 2009
- [2] Chang-Eun Lee, Analysis on the Relating Factors of Managerial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Hospital,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3. No.2, pp. 1-15, 2009
- [3] J. Valvona and F. A. Sloan, Hospital Profitability and Capital Structure: A Comparative Analysis, Health Services Research 23:3, pp343-375, 2003
- [4] Yoon Suk Jung, Key Sun Jung, Sung Woo Choi, Soo Kyung Jung, Chang Eun Le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on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Profit and Loss-Making Hospitals,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Vol. 6 No. 2, pp. 138-155, 2000
- [5] Kyung Hee Yi, Soon-Man Kwon,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 Hospitals, Korean J. of Health Policy & Administration, Vol. 13 No. 2, 101-124, 2003
- [6] Jae Woo Moo, Jae San Park, Analysis on the Relating Factors of Profitability of Korean Public

Corporation Medical Centers,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Vol. 9 No. 2, pp. 102-127, 2004

- [7] Jong Young Park, Some Factors Affecting Profitability of Local Public Hospitals,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Vol. 12 No. 3, pp 47-67, 2007
- [8] Miyeong Hong, Haejong Lee, Hyunsil Joo, Dongwon Lee, The Determinants of Profitability Performance in Regional Public Hospitals, Korean Society of Hospital Management, Vol. 14 No. 2, pp 1-20, 2009

강 정 규(Kang, Jung-Kyu)

- 2001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석사)
- 2010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청주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친환경병원, 보건
- E-Mail : ssusi@cju.ac.kr

김 상 미(Kim, Sang-mi)

- 1998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13년 현재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박사 재학중)
- 관심분야 : 의무기록, 보건
- E-Mail : seaseal2@nate.com

황 성 완(Hwang, Sung-Wan)

- 2008년 2월 :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보건학박사-석박사통합과정)
- 2009년 2월 ~ 현재 : 백석예술대학교 헬스케어 교수
- 관심분야 : 병원경영, 보건
- E-Mail: healthgate@bau.ac.kr

윤 서 중(Seo-Jung Yoon)

- 2004년 2월 : 연세대학교 병원행정학과(보건학석사)
- 2011년 8월 :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박사수료)
- 2011년 10월 ~ 현재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경영기획팀장
- 관심분야 : 병원경영, 보건
- E-Mail: sniper0913@daum.net